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원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교회학교의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우리의 소망되신 그리스도"를 주제로

이번 주 대학부가 2월 16일(수)부터 2박 3일 간 양수리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적인 영성 훈련을 위한 교회학교 겨울 계절학교가 3월 1일까지 계속 된다.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인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부서 특성에 맞는 주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계절학교 기간을 매 주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아쉬

웠던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

유치부 · 유년부 · 초등부는 21일(월)부터 각각 2일간의 성경학교를 개최하며 사랑부는 25일(금)에 일일 성경학교를 개최한다.

또한 중등부 24일(목) - 25일(금), 고등부 21일(월) - 22일(화) 양일간, 청년부 28일(월) - 3월 1일(수)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각각 개최한다.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일정

부서	실사일	장소	주제
유치부	2월 21일(월) - 22일(화)	교회당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유년부	2월 21일(월) - 22일(화)	교회당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초등부	2월 21일(월) - 22일(화)	교회당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중등부	2월 24일(목) - 25일(금)	교회당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등부	2월 21일(월) - 22일(화)	교회당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대학부	2월 16일(수) - 18일(금)	양수리수양관	젊은이여 소망을 위하여 준비하라
청년부	2월 28일(월) - 3월 1일(수)	동신기도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사랑부	2월 25일(금)	교회당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조직 일부 변경

우리 교회 당회는 서문석 장로 사무국장 취임에 따라 2월 1일자로 당회 서기에 정병무 장로, 유아부 부장에 전기섭 장로를 각각 임명했다.

천국시민의 온전한 삶에 교육 목표를 둔 우리 교회 교회학교는 이번 주간부터 겨울성경학교 및 겨울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통해 매 주일 받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계절학교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거듭남을 체험하며 성숙한 신자로 신앙이 진일보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번 계절학교의 전체 주제는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입니다.

1.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소망을 얻는 계절학교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마16:26). 이렇게 귀한 생명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니"(요11:25 - 26)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행4:12). 이번 계절학교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순종하여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해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번 계절학교 기간 중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엡2:14 - 16) 평화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 새 소망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계절학교

이성득(목사, 교육위원회 지도)

보내신 독생자를 진정으로 만나 영생을 소유하고 새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평화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소망을 얻는 계절학교

평화는 믿음과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을 도모합니다. 참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14:27)고 하시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불

3. 인간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소망을 얻는 계절학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요3:3, 5).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롬3:23)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고후5:17). 그러므로 인간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안에서 썩어져 가는 구슬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엡4:22 - 24) 소망 가득한 계절학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강해

메시아 왕국

이사야 32장 15 - 20절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도래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이고 자연계가 변화 될 것이며 무엇보다 인간 사회에 공의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1. 성령을 부어주신다

15절 말씀은 앗시리아 침략이 지난 후에 유다에 복지 국가가 건설 될 것을 뜻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위에서부터" 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의미하며 "성령을 부어주시리니"는 성령을 물로 비유하여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심을 의미합니다(사 44:3, 겔 39:29, 욥 2:8, 눅 11:13).

하나님께서 성령을 개인이나 선지자 등에게 부어주신 것은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그러나 한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 주어 회개케 한다는 말씀은 이사야가 처음으로 선포한 듯 합니다. 그러면 한 민족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실 것인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비교하며 공부하겠습니다.

오순절이란 율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또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지 50일이 되는 날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한편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만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는 중요한 사건 네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 재림이 전에 있는 마지막 사건이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령이 오신 것이고, 성령 강림은 성령사역의 출발이며, 성령 강림은 교회의 출발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요 16:13절 이하).

초대 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상징적인 표시가 있었는데 능력의 상징으로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졌고, 성결의 상징으로 불의 혀가 보여졌으며,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은

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2. 자연의 변화가 일어난다

· 광야는 비가 없어서 아무런 식물을 내지 못합니다(15절). 그런데 광야가 옥토화 하고 원래 옥토였던 곳은 아름답고 풍요한 삼림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사 32:15 - 20)



이종운 목사

나님의 백성의 윤리가, 크게 변화 될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같이 열매 없던 신자들이 아름다운 밭과 같이 열매 많은 신자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신자들은 더 좋아져 삼림 같이 우거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변화란 우리의 옛 사람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은 신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 열매를 내듯 열매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 인간 사회에는 공의가 넘친다

'광야' 는 가장 낮은 곳이며 '아름다운 밭' 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16 - 17절은 나라의 어느 곳이든지 공평과 정의가 편만하게 행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일어날 중요한 사건으로 평안과 안식은 그리스도 왕국의 최종 목표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정의는 강 건너에 있다" 고 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일 뿐입니다. 의는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메시아 왕국은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임할 때 평

안과 안전이 임하며 인간의 것으로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축복에 앞서 고난이 먼저 옵니다(19절). 이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나오게 되

며 타인이 고난을 받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이들을 위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힘들다고 버리려고 하지도 말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으로 받아야 합니다.

17 -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한 곳에 와서 조용히 쉬 수 있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과 성읍이 파괴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도 필요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는 기한이 있고 계속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앗수르 침략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은 평안하게 농사할 수 있게 됩니다(20절). 이것은 평화의 상징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비유합니다. '아름다운 밭', '물가에 씨를 뿌림' 과 같은 것은 광야에서 이루어질 축복을 말합니다. 잠시 동안 있는 고난은 영원히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곧 지나가며 축복의 때를 맞게 되는데 그 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올 터이니 오늘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히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우리 부서는

임마누엘찬양대

지휘자는 춤추고 대원은 들어가고

김동연(집사, 임마누엘찬양대원)

새 천년이 되면 많은 것이 새로와질 것처럼, 더 좋아질 것처럼 온 세계가 떠들석하더니 새 천년이 밝은 지 벌써 한달 반이 흘렀다. 많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지만 현재의 우리의 생활, 우리 사회는 작년 그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1999년도와 2000년도의 갈림길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겨난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임마누엘찬양대이다.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김선일 교수님을 우리 찬양대의 새 지휘자로 맞이한 이후 우리 임마누엘찬양대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예전 같으면 20분 정도 늦게 시작하던 연습 시간이 예정대로 12시 30분 정각에 시작되고, 앞에서 춤을 추듯 열정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지휘자의

열심에 대원들도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발전적인 추세에 박차를 가해 우리 찬양대는 새 예배당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원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많

은 수가 부족한 남자 대원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봉사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대원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함께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란다.



편지왔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이 부럽습니다

이광환(경남 마산)

한번도 이종윤 목사님을 직접 뵈 적이 없으나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그리고 서울교회의 어떤 성도가 꾸준히 보내주시는 설교테이프를 통해 목사님을 가까이 뵈는 마음으로 늘 은혜받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글을 올립니다.

힘써 진리를 전하시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노라면 그 설교를 직접 듣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부러운 생각이 들고 참으로 복 받은 성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저도 기회가 되면 직접 목사님의 설교를 듣

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나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기회가 좀더 자주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동인지는 모르겠으나 피를 토하듯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목사님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서울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적은 기도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구 모임을 마치고

천국을 맛보며 봄날을 꿈꾸노라

최재춘(집사, 2교구 간사)

한자리에 모이면 왜 그리도 반가운지.

추운 날씨 가운데 교구 가족이 한 자리에 서 만나니 오랫동안 보는 얼굴도 낯선 얼굴도 있었다. 주일엔 각 가정별로 예배 드리고 각자가 맡은 부서에서 봉사하다 보니 좀처럼 만나지 못하던 분들도 만날 수 있는 연합 교구 모임은 언제나 얼굴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친다.

교구 지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교제를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이어 맛나는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운데 교구 일꾼과 새가족 소개가 있었다.

연이어 교구 운영 계획 발표와 신안건 토의가 있었고 다락방 배가운동, 다락방 예배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토의하는 가운데 모임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갔다.

우리 교회의 과제인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태신자와 새가족을 위해, 일꾼들과 병석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다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꽃이 만발하는 봄이 되면 야외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하면서 모두가 만물이 소생함의 봄을 맞이하는 마음처럼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3개월 후를 기약하며 헤어졌다.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며 우리는 천국을 맛보았다. 천국에 가서 소망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에도 역시 성도들과 교제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일은 계속되리라.

강추위를 몰아낸 뜨거운 기도회

이재윤(집사, 12교구)

우리 교구는 서울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성남, 분당, 수지, 신갈, 용인 지역이다.

12교구가 새 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연합 모임을 갖는 날. 대한(大寒)이 몇 주 전에 지났건만 광고산 자락에서 밀려오는 삭풍이 소맷깃을 깊숙이 파고 들었다. 며칠 전부터 서로 연락을 하고 장로님들은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서 칼국수집으로 장소를 정했다. 그날 오후 6시가 조금 넘어서부터 식구들이 모여 오기 시작하더니 칼국수집 한쪽 홀을 가득 메웠다.

1부 예배 시간. 이종윤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세파에 시달려 공허했던 교구 식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셨다. 말씀을 받는 중에 우리는 건강, 지혜, 물질, 명예 그리고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대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며 감사를 드렸다.

2부 친교의 시간. 식탁의 교제 시간엔 식당 메뉴에도 없는 통닭구이이며 각종 과실까지 등장했고 그동안 소원(疏遠)했던 교구 식구들이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누렸다.

3부 시간엔 교구 가족 소개에 이어 교회 건축, 태신자와 새가족, 담임 목사님과 교구 일꾼들, 환우들을 위한 뜨거운 통성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은 마치 식당이 아닌 교회로 착각할 정도로 기도의 열기가 넓은 식당안을 가득 메웠다.

마지막 순서로 우리는 각 가정의 긴박한 기도 제목들을 종이에 적어 이종윤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다. 목사님께서서는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새벽마다 기억하며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참석한 60여 명 모든 가족들은 모두 일어서서 손을 손을 잡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의 인자하심..." 찬양을 열창하며 들어올 때의 추위는 기억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따사로운 어느 봄날, 절친한 동료 윤일병은 내게 대뜸 "정일병! 우리 이번엔 같이 세례받자"고 제안했다.

"나 같은 자가 세례는 무슨..."

"군중 장교의 간청도 있고 하니 같이 받자."

* * *

어렸을 때 2년간 집 근처 교회를 다녔던 난 늘 마음 한 구석에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다 군대에서 친구와 함께 가끔 교회에 나가다가 얼떨결에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제대 후 마땅히 출석할 교회를 찾지 못하고 급기야 신앙 생활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후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기 전까지 내 생애 중 가장 세속적인 삶으로 귀한 학창시절을 허비하고 말았다. 나는 지금도 내 삶 중 가장 후회스런 시간이 그때였다고 생각하고, 그때 만약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다면 매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접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 본다.

* * *

이런 나의 과거를 알기나 한 듯 어느 날 바

전2020본부에서 교육부를 담당해 달라는 제의가 왔다. 나는 아직 우리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섬길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나 비전2020운동만큼은 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옛날 나와 같

해 이 전략을 펼치고 계신다. 마치 갈비집 옆에서 40일 금식을 강요하는 것같이 인간 세상에 가장 유혹받기 쉬운 군인들을 통해 이 뜻을 펼치시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일에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

이종운 목사님을 통해 이 비전을 받았고 이미 대학부와 청년부의 여러 명이 군복음화의 사명을 띠고 영적 싸움터에서 땀 흘리고 있다. 이들 중에는 군중사병으로 근무하면서 교회당을 짓는 일까지 감당해 온 형제들도 있다. 그리고 비전2020본부에서 자매 부대를 방문하여 직접 전도운동을 하는 것을 비롯해 기도과 물질

로 후원하는 모임이 조직되어 있다. 한편 대학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비전2020용사대가 결성되어 우리 교회에 할당된 군인들과 우리 교회에서 군에 간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보와 순례자를 비롯하여 편지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다. 금년에는 이 일을 위해 더욱 기도와 믿음으로 정진하기를 다짐했다. 비전2020용사들은 이 일이 우리 힘만으로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용사로 나아갈 것이다.

갈비집 옆에서 금식하는 편이 낫지

정호진(집사, 비전2020운동 교육부장)

은 젊은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20년 내에 민족 75%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고자 하는 비전2020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이다. 적어도 내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 4명 중 3명은 나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된다는 생각은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장소인 군부대를 통

주님, 이 생명을 구원에 주옵소서!

2000년 태신자 명단

전도자	태신자
유후자	이일흠 이한용 김미선 이광용 이영주
우상태	박동하
이동석	한덕수 도중수
민순구	신언두 박찬웅 꾀은정
백수남	한경진 한경화
최학인	최규식
이태상	허찬구
박창희	박창열 강경순
손재겸	이연구 김장연
최재춘	최영숙
김상욱	박근숙 이영주
김세재	김세철 김화순 이병권 최병운
김관홍	김종구
박영옥	한남희
한정아	박종석 김응숙

전도자	태신자
이영희	목춘수 민영자 서영자 신병환 윤진 이영애
최소희	최조자
김영연	김영덕
김인희	파출부 이주머니
이정자	이정숙 권오숙 구설환
김명심	김수용 박현숙 김정옥 김광욱

100교회운동 결연현황

2월 6일 현재(다음호에 계속)

번호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95	동부교회	박훈(전)	분당1·논현14
96	금호교회	안치석(전)	이훈
97	반송교회	권영복(전)	필그림찬양대

■ 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미국장로교회(PCA) 총회 목회자 연차대회 주강사로 초청받아 14일(월) 출국하여 19일(토) 귀국한다.
- * 김영진 성도(5교구, 김정호·신경희 집사 아들)는 16일(수) 입대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정동학·김복순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제2권사회는 14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의 겨울성경학교·겨울수련회를 위해
2. 태신자와 새가족을 위해
3.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외기도

